

연구보고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보고 I*

- 경영형태별 농가주부의 특성과 농업경영 -

최 덕 경

안성산업대학교 생활관리학과 부교수

A First Study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Farm Household

Choi, Duck-Kyung

Dept. of Home Management Anse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quality of life in farm households. This study examines some related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l-being of the family life among the rural housewives, based on the farm management, household management, the satisfaction of the household and 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200 housewives residing in Anseong. The 187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has been found that the role of the rural housewive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work not only at home but also in work. The satisfaction of rural housewives about family living and community is very low. In order to improve work, work course should be mechanized. If greater attentions should be directed to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the quality of family life could be improved and stabilized.

Key Words :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ork management, household management, satisfaction of household, satisfaction of community

I. 서론

우리나라는 극심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사회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 농촌가족구조의 변화, 영농방식의 기계화, 생활양식의 도시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정부에서는 1984년부터

농촌공업육성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정세 변화에 따라 농업과 농가생활을 둘러싼 문제도 적지 않다. 또한 멀지 않아 다가 올 21세기를 향하여 농가, 농촌의 특성을 살려 보람있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문화와 충실감 있는 새롭고 풍요로운 창조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경영면에서 본 농가생활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촌생활의 과제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일본농학원대학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한 것의 일부임.

생활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농업, 농가생활을 짊어질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경영형태별 농가주부의 특성과 농업경영형태에 대해 조사하여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Ⅱ. 조사의 개요

1. 조사 농가의 선정

다가 올 21세기를 향하여 풍요를 실감할 수 있는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는 20대를 지나 중견으로서 경영과 생활을 짊어진 30대에서 40대의 농가 주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 때문에 한국 안성시 농가의 수도작 전업, 수도작 부업, 낙농, 과수의 4가지 경영형태의 30~40대의 주부 260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성시 농업의 총 농가수는 15,304호로 안성시 총가구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농업지대이다. 또 농업인구는 전국농업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낙농, 비육우는 사육두수가 전국시의 2위이다. 특산물인 배는 한국의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 조사대상지역의 개요

조사대상 지역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중부 중간지대, 동부평야지대로 확대되는 농업지대로서 수도작, 과수, 축산을 중심으로 농업지대가 펼쳐지고 있다. 생활면의 특징으로는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전반적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은 높지만, 문화 및 사회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수도권과의 격차가 크다. 따라서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련된 과제가 많다고 하겠다.

3. 조사내용

농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대상의 기본적 속성, 둘째, 농업경영과 농가 주부,

셋째, 가사운영과 가계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만을 발표하고, 후속 연구로 여가생활활동과 생활정보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하고자 한다.

4. 조사방법

조사시기는 1995년 11월에서 1996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개별방문에 의한 직접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71.9%로, 총 187부의 설문지가 최종자료로 분석되었다.

Ⅲ. 조사결과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 농가 주부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령구성은 30대후반의 연령층이 전체의 53.5%로 가장 많았고, 각 경영형태의 평균연령도 30대후반의 비중이 높고, 전체의 평균연령은 37.4세이었다.

결혼지속년수를 보면 전체의 64.7%가 11년부터 20년이고, 어느 경영 형태도 평균은 거의 12년이었다. 이 결과 주부로서 1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베테랑 주부가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46.5%이며, 확대가족이 49.8%로 거의 반반이다. 확대가족은 '부부+자식+양친'이 19.8%이며, '부부+자식+모친'이 41.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입은 전체적으로 연간 1,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00만원이 25.1%였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전업농가에서는 2,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 1,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미만이며, 나머지는 500만원 미만이었다. 수도작 복합농가에서는 1,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지만 2,000만원 미만과 거의 같으며, 약 80%가 3,000만원 미만이었다. 한편 8,000만원을 넘는 농가의 예도 2가구 있었다. 낙농가에서는 1,000만원 미만 농가가 4할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과수농가에서는 3,000만원 미만 농가가 30%이상으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경 영 형 태		경 영 형 태						계 (%)	
				수 도 작				낙농 (%)			
		전업 (%)		복합 (%)							
연령	30~34세	14	9.6	7	13.7	15	28.8	6	18.8	42	22.5
	35~39세	25	40.4	32	62.7	24	46.2	19	59.4	100	53.5
	40~44세	11	1.9	8	15.7	9	17.3	6	18.8	34	18.2
	45~49세	2	0.0	4	7.8	4	7.7	1	3.1	11	5.9
	평 균	37.4세		38.1세		37.4세		36.7세		37.4세	
결혼 지속 년수	1~5년	3	5.8	2	3.9	4	7.7	1	3.1	10	5.3
	6~10년	15	28.8	11	21.6	13	25.0	10	31.3	49	26.2
	11~20년	32	61.5	36	70.6	32	61.5	21	65.6	121	64.7
	21년이상	2	3.8	2	3.9	3	5.8	0	0.0	7	3.7
	평 균	12.8년		12.8년		12.5년		12.5년		12.7년	
가족 구성	부부	5	9.6	3	5.9	2	3.8	0	0.0	10	5.3
	부부+자녀	21	40.4	14	27.5	27	51.9	15	46.9	77	41.2
	부부+양친	1	1.9	3	5.9	0	0.0	1	3.1	5	2.7
	부부+부친	0	0.0	4	7.8	1	1.9	1	3.1	6	3.2
	부부+모친	1	1.9	1	2.0	2	3.8	0	0.0	4	2.1
	부부+자녀+양친	12	23.1	11	21.6	9	17.3	5	15.6	37	19.8
	부부+자녀+부친	0	0.0	2	3.9	1	1.9	1	3.1	4	2.1
	부부+자녀+모친	9	17.3	9	17.6	7	13.5	6	18.8	31	16.6
	부부+자녀+부친+기타	2	3.8	0	0.0	1	1.9	0	0.0	3	1.6
부부+자녀+모친+기타	1	1.9	0	0.0	2	3.8	0	0.0	3	1.6	
농가 수입	1,000만원미만	13	25.0	16	31.4	23	44.2	5	15.6	57	30.5
	1,000~2,000만원미만	19	36.5	15	29.4	8	15.4	5	15.6	47	25.1
	2,000~3,000만원미만	13	25.0	9	17.6	7	13.5	11	34.4	40	21.4
	3,000~5,000만원미만	7	0.0	5	9.8	7	13.5	6	18.8	25	13.4
	5,000~7,000만원미만	0	0.0	3	5.9	4	7.7	5	12.5	11	5.9
	7,000~8,000만원미만	0	0.0	2	2.0	3	5.8	1	3.1	5	2.7
	8,000만원이상	0	0.0	1	3.9	0	0.0	0	0.0	2	1.1
경영 조직	개인경영	46	88.5	48	94.1	46	88.5	25	78.1	165	88.2
	농업법인조직	3	5.8	0	0.0	1	1.9	0	0.0	4	2.1
	협업조직	1	1.9	1	2.0	1	1.9	3	9.4	6	3.2
	농작업공동화	1	1.9	0	0.0	3	5.8	2	6.3	6	3.2
	기타	1	1.9	2	3.9	1	1.9	2	6.3	6	3.2
	계	52		51		52		32		187	

로 나타났다.

경영조직은 전체의 88.2%로 9할 가까이가 개인 경영이고, 앞에서 본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농업법인조직, 협업조직 및 농작업의 공동화는 1내지 3정도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복합 농가에서는 개인경영조직이 90%이상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과수농가에서는 개인경영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에 비해 협업조직이나 농작업의 공동화가 다른 것보다도 많다. 설문 대상인 농가는 선진적 농가가 많으므로 농촌에 남아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농업인 가운데에는 특히 과수농가 등으로 집단화나 공동화 등의 경영이 나타났다.

2. 주부의 농작업 및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있어서 주부의 참가상황 및 그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면, 첫째, 생산활동에 참가정도, 둘째, 농작업과 농업경영에 종사내용, 셋째, 농번기, 평상시, 농한기의 노동시간 구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활동의 기간노동력 분담상황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의 기간노동력의 분담상황은 <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80% 가까이 부부가 함께 기본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남편만이 기본 노동에 종사하는 농가는 전체의 10% 정도이고, 부인만이 기본 노동을 하는 경우는 과수농가에 하나 뿐이었다. 부인이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는 4.8%로 적었으며, 78.1%의 주부가 남편과 함께 농업생활의 기본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었다. 각 경영형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과수농가로 그 비율은 87.5%이었다.

2) 농작업, 농업경영의 종사내용

위에서 대상농가의 주부들이 각 농업경영에 있어서 농업노동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을 알았다. 그 다음 주부들이 종사하는 농업노동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부가 종사하는 농작업

주부가 하는 농작업의 상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내용 중 각 10위까지의 작업내용을 보면 < 표 2-2 >와 같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전업농가에 있어서는 모내기, 육묘, 파종에서 시작하여 벼의 관리작업, 출하에 까지 모든 논농사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수도작 부업농가에 있어서는 수도작과 함께 가축사육에 관한 작업이 각각 50% 차지하여 상위에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낙농에 있어서는 가축 사육을 중심으로 수도작 작업도 36.5%이고 년중 바쁜 나날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수농가에 있어서는 상품가치에 유의하여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적심·적화', '선별·포장', '판매'가 상위 10항목에 있음과 동시에 가축의 사육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② 주부가 하는 농업경영 내용

농작업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의 참여가 농가 생활 근대화 의 과제가 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농가의 주부들이 관여하는 경영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7 >의 참가현황을 보면 전체의 52.4%

< 표 2-1 > 농업생활활동의 분담상황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부부기본노동	37	71.2	42	82.4	39	75.0	28	87.5	146	78.1
부의 기본노동	6	11.5	2	3.9	9	17.3	2	6.3	19	10.2
처의 기본노동	0	0.0	0	0.0	0	0.0	1	3.1	1	0.5
처의 가사전념	4	7.7	2	3.9	3	5.8	0	0.0	9	4.8
기 타	5	9.6	5	9.8	1	1.9	1	3.1	12	6.4
계	52		51		52		32		187	

〈 표 2-2 〉 농작업종사내용 - 상위 10항목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전 식	25 (48.1)		축사 청소	28 (54.9)	축사 청소	35 (67.3)	적심·적화	20 (62.5)	
묘 종	24 (46.2)		급 이	27 (52.9)	급 이	34 (65.4)	수 확	20 (62.5)	
수 확	23 (44.2)		묘 종	23 (45.1)	분만 세화	21 (40.4)	선별·포장	18 (56.3)	
중 경	22 (42.3)		중 경	23 (45.1)	육 묘	19 (36.5)	출 하	13 (40.6)	
시 비	15 (28.8)		수 확	22 (43.1)	중 경	19 (36.5)	묘 종	12 (47.5)	
근 수	15 (28.8)		전 식	21 (41.2)	묘 종	16 (30.8)	급 이	11 (34.4)	
육 묘	14 (26.9)		방 제	18 (35.3)	착 유	15 (28.8)	선 정	10 (31.3)	
방 제	13 (25.0)		착 유	18 (35.3)	방 제	13 (25.0)	축사 청소	8 (25.0)	
제 초	12 (23.1)		분만 세화	15 (29.4)	전 식	11 (21.2)	판 매	6 (18.8)	
수 관 리	12 (23.1)		제 초	14 (27.5)	제 초	11 (21.2)			
선별·포장	12 (23.1)								

의 주부가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수입의 관리'가 34.8%, '작부·작업계획'이 33.7%로 농업경영의 주요 항목에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경영형태별로는 이러한 특징은 수도작 복합농가에는 물론이고, 과수농가에서는 전체평균을 밑도는 50%의 주부가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 '작부·작업계획'이 46.9%, '판매·출하계획'이

40.6%로 경영의 주요 항목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밖의 경영도 각각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농한기, 평상기, 농한기별 노동시간

1일 24시간의 생활시간에서 노동은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농업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말아서 일하는 주부의 노동시간을 농작업의 농번기, 평상기, 농한기의 세시기에

〈 표 2-3 〉 농업경영 종사내용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작 목 · 품 종 결 정	13	25.0	12	23.5	8	15.4	8	25.0	41	21.9
작 부 · 작 업 계 획	11	21.2	19	37.3	18	34.6	15	46.9	63	33.7
농업기계·시설계획	6	11.5	11	21.6	10	19.2	7	21.9	34	18.2
판 매 · 출 하 계 획	9	17.3	10	19.6	8	15.4	13	40.6	40	21.4
경 영 부 기 장	1	1.9	7	13.7	10	19.2	7	21.9	25	13.4
농 작 업 일 지	8	15.4	7	13.7	8	15.4	1	3.1	24	12.8
세 무 신 고	26	50.0	28	54.9	28	53.8	16	50.0	98	52.4
농 업 수 입 관 리	17	32.7	20	39.2	18	34.6	10	31.3	65	34.8
농업경영비관리	9	17.3	14	27.5	14	26.9	8	25.0	45	24.1
경 영 방 침 결 정	8	15.4	7	13.7	5	9.6	4	12.5	24	12.8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2		51		52		32		187	

대하여 조사하였다.

① 농작업시간

시기별로 본 1인 1일 평균노동시간은 < 표 2-4 > 와 같다. 농작업의 바쁜 정도에 따라 농작업시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에서

는 농번기(7시간 48분)에 비해 평상시는 약 3시간 단축하고 농한기에는 5시간 45분이 단축되고 있다. 경영형태별로는 농번기에 있어서도 각각 8시간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낙농가만이 6시간 21분을 나타내고 있다.

< 표 2-4 > 평균농작업시간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농 번 기	8시간 17분	8시간 8분	6시간 21분	8시간 3분	7시간 48분
평 상 기	4시간 49분	4시간 52분	5시간 2분	4시간 56분	4시간 55분
농 한 기	2시간 4분	3시간 31분	4시간 21분	2시간 15분	2시간 3분

< 표 2-5 > 최장·최단 농작업시간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농 번 기	최장	18시간 0분	20시간 0분	13시간 0분	15시간 0분	16시간 30분
	최단	3시간 0분	1시간 0분	1시간 0분	2시간 0분	1시간 45분
평 상 기	최장	12시간 0분	14시간 0분	9시간 0분	10시간 0분	11시간 15분
	최단	1시간 0분	1시간 0분	1시간 0분	2시간 0분	1시간 15분
농 한 기	최장	10시간 0분	18시간 0분	10시간 0분	8시간 0분	11시간 30분
	최단	1시간 0분	1시간 0분	1시간 0분	2시간 0분	1시간 0분

< 표 2-5 >의 최장 농작업 시간을 보면, 농번기의 1일 평균시간은 16시간 30분이나 되고 있으며, 가장 긴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수도작 복합이 20시간이다. 그 다음 수도작 전업이 18시간으로 길고, 그 원인은 다종류의 작부, 작물의 영향에 의한 것일 것이다. 평상기에는 '전업', '복합'의 수도작 농가가 두가지 형태 공히 10시간 이상으로, 낙농가는 9시간이다. 농한기에는 과수의 8시간을 제외하고는 10시간 이상으로 수도작 복합은 평균시간을 상회하는 18시간이다.

다음으로 최단시간의 전체평균은 각 기별 1시간대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농번기의 수도작 전업 농가, 과수농가는 각각 3시간과 2시간이다. 또 농

한기는 전 농가가 모두 1시간이다.

② 가사작업시간

< 표 2-6 >의 농작업 시기별 가사작업 시간을 보면 농번기 3시간 47분, 평상기 4시간 13분, 농한기 4시간 23분이고, 농번기에도 3시간 47분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7 >의 농작업의 시기별 평균 최장 가사작업 시간을 보면 농번기가 11시간 30분, 평상기와 농한기가 10시간 45분이고, 최단시간도 각각 1시간대로 적다.

주부의 일일 총노동시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 표 2-8 >과 같다. 전체 평균으로는 농번기가 11시간 36분, 평상기 11시간 20분, 농한기 6시간

〈 표 2-6 〉 평균 가사작업시간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농 번 기	3시간 51분	3시간 12분	4시간 35분	0시간 32분	3시간 47분
평 상 기	4시간 25분	3시간 27분	5시간 0분	4시간 0분	4시간 13분
농 한 기	5시간 43분	3시간 31분	4시간 57분	2시간 23분	4시간 23분

〈 표 2-7 〉 최장·최단 가사작업시간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농 번 기	최장	8시간 17분	8시간 8분	6시간 21분	8시간 3분	7시간 48분
	최단	8시간 17분	8시간 8분	6시간 21분	8시간 3분	7시간 48분
평 상 기	최장	4시간 49분	4시간 52분	5시간 2분	4시간 56분	4시간 55분
	최단	4시간 49분	4시간 52분	5시간 2분	4시간 56분	4시간 55분
농 한 기	최장	4시간 49분	4시간 52분	5시간 2분	4시간 56분	4시간 55분
	최단	2시간 4분	3시간 31분	4시간 21분	2시간 15분	2시간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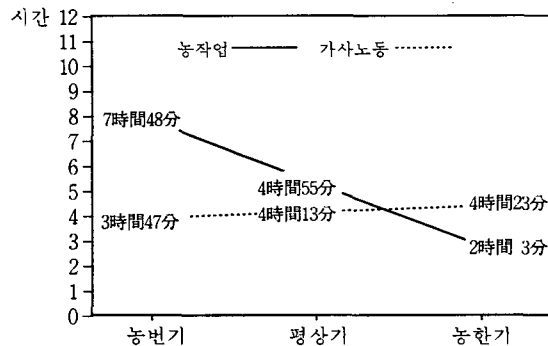
〈 표 2-8 〉 시기별 근로(농작업+가사)시간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농 번 기	12시간 8분	11시간 20분	10시간 56분	11시간 58분	11시간 36분
평 상 기	9시간 13분	8시간 19분	10시간 2분	8시간 56분	9시간 8분
농 한 기	7시간 46분	7시간 1분	9시간 18분	5시간 38분	7시간 26분

54분으로 농번기와 평상기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농한기는 6시간 54분으로 농번기의 61%로 나타났다.

③ 농작업시간과 가사작업시간

〈 그림 2-1 〉은 주부의 농작업시간과 가사작업시간의 관련을 농번·한기별, 경영형태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경영형태 모두 가사작업시간의 길이는 농작업시간의 길이에 반비례하여 변화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이 가운데 수도작 복합형태의 농가에 있어서는 농번기에서 농한기까지의 가사작업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 그림 1 〉 농번·평상·농한기별 작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전체)

4) 농업노동에서 부부노동의 평가와 경제적 자유도

① 농업의 노동보수

대상농가의 주부가 행하는 농업노동에 대한 보수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상농가 주부 가운데 18명인 9.6%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었다. 보수 수령방법을 보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받는 경우가 47.6%로 과반수가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입이 있을 때' 받는 경우가 23.0%, '월급제'가 19.3%이었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전업농가와 과수농가에서는 '월급제'와 '수입이 있을 때' 받는 경우가 같은 21.6%를 차지하고 있었다.

② 농업의 노동보수

노동보수의 수령방법은 <표 2-10>과 같다. 전체로서는 '남편으로부터'가 65.1%이었다. 그 다음 '가계비에서'가 20.7%이고, 경영형태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2-9> 노동보수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월급제	2(3.8)	11(21.6)	4(7.7)	1(3.1)	18(19.3)
수입이 있을 때	9(17.3)	11(21.6)	12(23.1)	11(34.4)	43(23.0)
명절 때	0(0.0)	0(0.0)	0(0.0)	0(0.0)	0(0.0)
자유롭게	28(53.8)	20(39.2)	23(44.2)	18(56.3)	89(47.6)
보수 적을 때	3(5.8)	1(2.0)	0(0.0)	0(0.0)	4(2.1)
기타	5(9.6)	3(5.9)	6(11.5)	1(3.1)	15(8.0)
없다	5(9.6)	5(9.8)	7(13.5)	1(3.1)	18(9.6)
계	52	51	52	32	187

<표 2-10> 보수 수령방법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남 편	28(59.6)	31(67.4)	31(68.9)	20(64.5)	110(65.1)
시아버지	2(4.3)	0(0.0)	2(4.4)	1(3.2)	5(3.0)
시어머니	0(0.0)	0(0.0)	0(0.0)	0(0.0)	0(0.0)
가 계 비	11(23.4)	8(17.4)	9(20.0)	7(22.6)	35(20.7)
기 타	6(12.8)	7(15.2)	3(6.7)	3(9.7)	19(11.2)
계	47	46	45	31	187

③ 자신명의로의 예금통장

주부가 자신명의로의 예금통장이 있는가에 관한 결과를 <표 2-11>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86.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낙농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가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 주부의 농업은 경제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수를 받고 있으며, 자신 명의로의 예금통장을 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 통장사용에 관한 자유 결정권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 표 2-11 〉 자기명의의 예금통장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있다	46(88.5)	45(88.2)	39(75.0)	30(93.8)	160(85.6)
없다	6(11.5)	6(11.8)	11(21.2)	2(6.3)	25(13.4)
계	52	51	52	32	187

3. 가사·가계관리

1) 가사 담당자

〈 표 3-1 〉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주부가 하는 가사로서 담당율이 가장 높은 것은 '요리'가 96.

8%, '설거지'가 95.7%, '세탁'이 95.7%이었다. '청소'는 92.0%, '아기돌보기'는 88.2%로 주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요리', '설거지', '세탁'을 주부가 담당하는 비율이 모두 높고, 특히 낙농가에서

〈 표 3-1 〉 주부의 가사담당비율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과수(%)		계	
	전업(%)		복합(%)							
장 보 기	44	84.6	40	78.4	45	86.5	28	87.5	157	84.0
요 리	50	96.2	47	92.2	52	100	32	100	181	96.8
설 거 지	50	96.2	46	90.2	52	100	31	96.9	179	95.7
청 소	49	94.2	45	88.2	48	92.3	30	93.8	172	92.0
세 탁	50	96.2	47	92.2	51	98.1	31	96.9	179	95.7
아 기 돌 보 기	47	90.4	39	76.5	49	94.2	30	93.8	165	88.2
계	52		51		52		32		187	

〈 표 3-2 〉 남편의 가사담당비율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과수(%)		계	
	전업(%)		복합(%)							
장보기	4	7.7	7	13.7	6	11.5	2	6.3	19	10.2
요리	0	0.0	2	3.9	0	0.0	0	0.0	2	1.1
설거지	0	0.0	2	3.9	0	0.0	0	0.0	2	1.1
청소	1	1.9	1	2.0	1	1.9	0	0.0	3	1.6
세탁	0	0.0	1	2.0	0	0.0	0	0.0	1	0.5
아기돌보기	0	0.0	2	3.9	1	1.9	0	0.0	3	1.6
계	52		51		52		32		187	

〈 표 3-3 〉 모친의 가사담당비율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		과수 (%)		계	
	전업 (%)		복합 (%)							
장 보 기	2	3.8	1	2.0	1	1.9	1	3.1	5	2.7
요 리	1	1.9	1	2.0	0	0.0	0	0.0	2	1.1
설 거 지	1	1.9	2	3.9	0	0.0	0	0.0	3	1.6
청 소	1	1.9	4	7.8	1	1.9	0	0.0	6	3.2
세 탁	1	1.9	2	3.9	0	0.0	0	0.0	3	1.6
아기 돌 보기	4	7.7	6	11.8	1	1.9	1	3.1	12	6.4
계	52		51		52		32		187	

〈 표 3-4 〉 타인의 가사담당비율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		과수 (%)		계	
	전업 (%)		복합 (%)							
장 보 기	1	1.9	3	5.9	0	0.0	1	3.1	5	2.7
요 리	0	0.0	1	2.0	0	0.0	0	0.0	1	0.5
설 거 지	0	0.0	1	2.0	0	0.0	1	3.1	1	0.5
청 소	0	0.0	1	2.0	2	3.8	2	6.3	5	2.7
세 탁	0	0.0	1	2.0	1	1.9	1	3.1	3	1.6
아기 돌 보기	0	0.0	1	2.0	0	0.0	1	3.1	2	1.1
계	52		51		52		32		187	

는 100%에 가깝게 주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낙농가의 핵가족율이 다른 것에 비교하여 조금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내 이외에 모친이나 그 외의 사람에 의한 가사의 담당상황은 매우 적고, '장보기'를 전체적으로 10.2%정도를 남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참조). 또 모친이 주로 하는 가사로서는 '아기 돌보기'가 전체의 6.4%로 비율은 적지만 가사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3-4 참조).

2) 가정 외 서비스 이용현황

〈 표 3-5 〉에 의하면 거의 매일 이용한 가정 외 서비스로서는 첫째로 '도시락'이 56.7%, '김치'가 44.9%이었다. 전통식품의 하나인 김치이지만 우

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자가가공품이 아닌 외부서비스로서의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 1~2회 정도 이용하는 가정의 서비스로서는 '조리된 식품'이 34.2%, '가공·냉동식품'이 23.0%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것이나 이용률은 20% 정도이지만 이런 것이 우리나라 농촌에도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1~2회 정도 이용하는 가정의 서비스는 '농협, 은행 등의 업무'가 43.9%, '드라이클리닝'이 33.2%이었다. 이러한 이용률은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3-6 〉은 각종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결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항목의 가정 외 서비스 가운데

〈 표 3-5 〉 가정 외 서비스이용

매일이용		주 1~2회 이용		월 1~2회 이용	
도 시 락	106(56.7)	만들어진 재료	64(34.2)	은행 자동이체	82(43.9)
김 치	84(44.9)	가공·냉동식품	43(23.0)	드라이크리닝	62(33.2)
급 식 센 터	23(12.3)	은행 자동이체	32(17.1)	가공·냉동식품	56(29.9)
은행 자동이체	22(11.8)	김 치	27(14.4)	만들어진 재료	45(24.1)
어 린 이 집	15(8.0)	현 금 카 드	26(13.9)	현 금 카 드	43(23.0)

〈 표 3-6 〉 전체적 가정 외 서비스이용

만들어진 재료	187(100)
파출부	187(100)
가정부	184(98.4)
day-service	184(98.4)
어린이 집	178(95.2)
보육소, 탁아소	161(86.1)
급식센터	155(82.9)
가공식품, 냉동식품	147(78.6)
음식점 배달	138(73.8)
드라이 크리닝	107(57.2)
현금카드	105(56.1)

이 가운데에는 서비스시설이나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용이 없는 것 및 가정 상황에 따라 이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현금카드이용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자가가공품, 자급현물의 자가이용

(1) 자가가공품의 이용현황

자가 가공품의 유무 및 자가가공품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 표 3~7A 〉와 같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가 가공품이 '있다'고 응답한 세대는 48.1%로 반수 이하이었고, '없다'가 52.9%로 대답한 농가가 약간 높았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복합농가에 있어서 자가가공품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54.9%), 그 다음이 낙농가의 경우 53.8%, 과수농가가 53.1%가

데, 11개항목에 대하여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0%정도를 넘고 있었다.

〈 표 3-7A 〉 자가가공품 이용이유

유무	이유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과수(%)		계	
		전업(%)		복합(%)							
유	유	17	32.7	28	54.9	28	53.8	17	53.1	90	48.1
무	무	35	67.3	23	45.1	24	46.2	15	46.9	97	51.9
이용이유	팔지못할 물건	0	0.0	1	3.6	1	3.6	1	5.9	3	3.3
	사는것보다 싸	5	29.1	2	7.1	2	7.1	4	23.5	13	14.4
	사는 것보다 안전	2	11.8	3	10.7	6	21.4	7	41.2	18	20.0
	신선, 맛있음	5	29.1	6	21.4	12	42.9	0	0.0	23	25.6
	좋은 질	1	5.9	5	17.9	2	7.1	3	17.6	11	12.2
	만드는 재미	3	17.6	3	10.7	1	3.6	1	5.9	8	8.9
	가족의 즐거움	1	5.9	8	28.6	4	14.3	1	5.9	14	15.6
계		52		51		52		32		187	

〈 표 3 - 7B 〉 자금현물 이용이유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		과수 (%)		계	
		전업 (%)		복합 (%)							
유무	유무	27 25	51.9 48.1	34 17	66.7 33.3	29 23	55.8 44.2	21 11	65.6 34.4	111 76	59.4 40.6
이용이유	팔지 못할 물건	2	7.4	2	5.9	1	3.4	0	0.0	6	5.4
	사는 것보다 싼	9	33.3	2	5.9	3	10.3	3	14.3	17	15.3
	사는 것보다 안전	6	22.2	4	11.8	8	27.6	3	14.3	21	18.9
	신선, 맛있음	7	25.9	13	38.2	11	37.9	7	33.3	38	34.2
	좋은 질	0	0.0	5	14.7	4	13.8	6	28.6	15	13.5
	만드는 재미	1	3.7	3	8.8	0	0.0	2	9.5	6	5.4
	가족의 즐거움	2	7.4	7	20.6	2	6.9	0	0.0	11	9.9
계		52		51		52		32		187	

자가가공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에 비하여 수도작 전업농가에서는 자가가공품의 이용률이 32.7%로 낮았다.

다음으로 이들 자가가공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맛있다'가 25.6%, '사는 것 보다 안전하다'가 20%, 이외에 '사는 것 보다 싸게 만든다'가 14.4%이었고, '가족이 즐거워한다'가 15.6%이었다. 이용하는 이유를 경영형태별로 보면, 특히 낙농가에 있어서는 '맛있다'가 42.9%이고 과수농가에서는 '사는 것 보다 안전하다'가 41.2%라고 응답하였다.

(2) 자금현물의 자가이용 현황

자금현물의 자가이용에 관한 결과는 〈 표 3-7B 〉이다. 전체의 59.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작 복합농가(66.7%)와 과수농가(65.6%)에서 자금현물의 자가이용이 6할 이상으로 높았다. 앞에서 논한 자가가공품 이용이 비교적 적었던 수도작 전업농가에 있어서도 자금현물의 자가이용에 관해서는 반수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금현물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맛있다'가 34.2%로 1위를 차지하였고,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가 18.9%, '사는 것 보다 싸다'가 15.3%로 나타났다. '팔 만한 것은 아니다'가 5.4%

로 낮은 이유를 보였다.

4) 가계부의 기록상황

일상가계비의 입출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는 〈 표 3-8 〉와 같다.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1.4%이었고, 나머지 거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가계부 기록을 하고 있었다. 경영형태별로 살펴보면 수도작 복합농가의 경우 '기록은 특별히 하지 않는다'가 25.5%로 약간 높아 보였다.

다음으로 가계부의 기록방법으로서는 '농협 가계부'가 39.6%로 이용률이 가장 많았다.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정리한다'는 13.4%로 낮았다. 기록방법을 경영형태별로 보면 '농협가계부' 이용은 특히 낙농가가 46.9%로 높았고, 수도작 복합농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정리한다'는 낙농가에서 약간 많았다.

5) 가계관리상의 문제점

가계관리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수회답으로 처리한 결과가 〈 표 3-9 〉와 같다. 전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위 3항목은 '자녀의 교육비가 많아진다'가 67.9%, '교제가 많아진다'가 45.5%, '수입이 불규칙하다'가 41.7%였다. 이것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농가에서도 같은 문

〈 표 3-8 〉 가계부 기록방법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과수(%)		계	
	전업(%)		복합(%)							
가계부를 사서 씀	9	17.3	0	0.0	2	3.8	4	12.5	15	8.0
부록가계부를 씀	5	9.6	7	13.7	2	3.8	2	6.3	16	8.6
농협가계부를 씀	20	38.5	18	35.3	21	40.4	15	46.9	74	39.6
영수증을 모아 나중에 정리	6	11.5	6	11.8	10	19.2	3	9.4	25	13.4
기록부를 만들때 씀	1	1.9	3	5.9	1	1.9	1	3.1	6	3.2
기록하지 않음	8	15.4	13	2.0	12	23.1	7	21.9	40	21.4
계	52		51		52		32		187	

제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부담'이 36.4%, '의료비 과잉'이 34.2%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0%이상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도권 전업농가, 수도권 복합농가, 낙농가에서는 각각 80%정도가 '자녀교육비가 부담된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과수농가에서는 '의료비 부

담'이 65.6%로 가장 높고, '자녀교육비 부담'이 12.5%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과수농가에서는 '교제비가 부담된다'가 50%를 차지하였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낙농가가 51.9%, 수도권 전업농가가 50%, 수도권 복합농가가 47.1%로 반수정도가 제2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부채부담은 수도권 복합농가가 47.1%로 높았다.

〈 표 3-9 〉 가계관리상 문제

	경 영 형 태									
	수 도 작				낙농(%)		과수(%)		계	
	전업(%)		복합(%)							
교제비가 늘어난다	25	38.5	25	49.0	24	46.2	16	50.0	85	45.5
무엇을 사야할지 모른다	5	9.6	6	11.8	2	3.8	4	12.5	17	9.1
자녀교육비가 늘어난다	39	75.0	42	82.4	42	80.8	4	12.5	127	67.9
현재 생산물을 더 잘 사용하고싶다	8	15.4	11	21.6	8	15.4	5	15.6	32	17.1
자녀에게 용돈 주는 법을 고려하겠다	13	25.0	15	29.4	10	19.2	9	28.1	47	25.1
의료비가 늘어난다	12	23.1	18	35.3	13	25.0	21	65.6	64	34.2
수입이 불규칙하다	26	50.0	24	47.1	27	51.9	1	3.1	78	41.7
지출내용이 불분명하다	2	3.8	11	21.6	4	7.7	1	3.1	18	9.6
세금신고가 힘들다	3	5.8	6	11.8	5	9.6	1	3.1	15	8.0
현명한 지출방법을 모른다	8	5.4	9	17.6	3	5.8	3	9.4	23	12.3
재정관리를 하지않는다	9	7.3	8	15.7	10	19.2	1	3.1	28	15.0
내 예금, 적금통장이 없다	1	1.9	3	5.9	7	13.5	1	3.1	12	6.4
부채가 부담스럽다	12	23.1	24	47.1	20	38.5	12	37.5	68	36.4
계	52		51		52		32		187	

6) 가정의 관리 운영상 미래계획

가정생활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3위까지 나타낸 것이 < 표 3-10 > 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신있는 요리 가지수를 늘린다'가

25.7%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 건강관리방법'이 14.4%로 나타나, 가정생활의 행복과 관련된 계획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위계획은 'PC기술이용'이 11.8%이었다.

< 표 3-10 > 더 열심히 하고 싶은 항목

1위	2위	3위
요리방법 48(25.7)	자녀예절교육 34(18.2)	실내장식방법 29(15.5)
가족의 건강관리방법 27(14.4)	실내장식방법 28(15.0)	가족의 건강관리방법 22(11.8)
컴퓨터 이용기술 22(11.8)	가족의 건강관리방법 27(14.4)	자녀예절교육 18(9.2)

7)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가정생활에 관계된 8개 항목, 지역생활환경에 관련된 6개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각 항목에 관하여 대단히 만족한 경우 4점, 만족한 경우 3점, 불만족한 경우 2점, 대단히 불만족한 경우 1점 처리하여 점수화하였다.

(1)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에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전체 만족도의 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관하여 보면,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자신만의 자유시간'이 2.7점, '가족동반 레저와 여행'이 2.7점,

'남편의 가사참가 및 협력'이 2.6점, '가족의 재산과 저축'이 2.6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평균점수 보다 낮은 것은 '가족동반 식사'가 2.1점, '부부 대화'가 2.1점,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유'가 2.2점이었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수입이나 재산, 저축'등 경제면에서 각 농가 모두 만족과 불만족의 중간을 나타내었고, '가족동반 레저와 여행'은 각 형태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가 및 협조'는 수도권 복합농가에서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다른 경영형태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11 > 가정생활 만족

	수도작 전업	수도작 복합	낙 농	과 수
가족과 함께 식사	1.8	2.1	1.8	2.1
부부 함께 대화	2.1	2.2	2.1	2.2
남편의 가사협조	2.8	2.5	2.8	2.8
자신만의 자유시간	2.6	2.6	2.6	2.8
가족 함께 여행	3.0	2.8	3.0	2.7
가족의 수입	2.5	2.6	2.5	2.5
가족의 재산과 저축	2.6	2.6	2.6	2.5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소유여부	2.4	2.3	2.4	2.2

(2)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앞에서 논한 가정생활만족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을 경영형태별로 보면, '도서관', '문화센터 강습',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시설', '유아보육시설'에 있어서 각 경영형태별 평균 만족도는 3점에서 3.2점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보건소, 병원'에 있어서는 각 경영형태 모두 '만족'의 평가를 얻었다.

< 표 3-12 > 지역생활 만족도

	수도작 전업	수도작 복합	낙농	과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시설	3.1	3.1	3.3	3.3
문화센터교실	3.2	3.2	3.3	3.4
유아보육시설	3.1	3.1	3.3	3.1
도서관	3.2	3.2	3.4	3.1
보건소, 병원	2.7	2.5	2.7	2.6
음악, 연극감상기회	2.9	3.2	3.3	3.3
평 균	3.0	3.0	3.2	3.1

8) 농작업과 가사작업의 효율화 대책

농작업과 가사작업의 효율화 대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수로 응답한 결과는 < 표 3-13 > 과 < 표 3-14 > 이다.

< 표 3-13 > 농작업 효율화 대책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농	과수	계
기계화	38 (73.1)	45 (88.2)	45 (86.5)	23 (71.9)	151 (80.7)
생산의 조직화, 공동화	25 (48.1)	26 (51.0)	20 (38.5)	22 (68.8)	93 (49.7)
작업체계 바꿈	14 (26.9)	13 (25.5)	15 (28.8)	7 (21.9)	49 (26.2)
고용노동 투입	3 (5.8)	5 (9.8)	2 (3.8)	2 (6.3)	12 (6.4)
계획적 작업	25 (48.1)	23 (45.1)	22 (42.3)	13 (40.6)	83 (44.4)
농업헬퍼 이용	6 (11.5)	11 (21.6)	16 (30.8)	2 (15.6)	38 (20.3)
주부 경영면 참가	11 (21.2)	10 (19.6)	18 (34.6)	5 (15.6)	44 (23.5)
기 타	1 (1.9)	0 (0.0)	1 (1.9)	0 (0.0)	2 (1.1)
계	52	51	52	32	187

(1) 농작업의 효율화 대책

전체적으로 농작업의 효율화대책을 살펴보면, '기계화'가 80.7%, '생산의 조직화, 공동화'가 49.7%, '작업의 계획화'가 44.4%이었으며, '유통개선, 공동출하'가 43.9%이었다.

경영형태별로는 전 경영형태의 70% 이상이 '기계화추진'을 들었고, 그 중에서도 수도작 복합농가가 88.2%로 가장 높고, 낙농가가 86.5%이었다. 과수농가에서는 '생산조직화, 공동화'가 68.8%, '유통의 개선, 공동출하'가 59.4%로 상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업의 계획화'도 각 경영형태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2) 가사노동의 효율화 대책

가사노동의 효율화대책의 최선책 3가지는 '가족의 협력으로 가사분담'이 71.1%, '주부의 농작업을 줄인다'가 55.1%, '가족이 주변의 일을 스스로 한다'가 54.5%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효율화 대책으로서는 '주부의 농작업 감량대책'과 함께 '가족의 협력에 의한 가사분담', '가족이 신변의 것을 스스로 한다', '가사작업의 계획화' 등의 가족 각자가 생활기술의 자립이나 가사분담과 협력체제, 가사작업의 계획화 등 생활의 합리화가 요구되어진다.

〈 표 3 - 14 〉 가사노동 효율화 대책

	경 영 형 태				
	수도작전업	수도작복합	낙 농	과 수	계
주부농작업 감소	24 (93.0)	27 (52.9)	30 (97.5)	22 (68.8)	103 (55.1)
가족의 가사분담	39 (75.0)	32 (62.7)	39 (75.0)	23 (71.9)	113 (71.1)
가사의 공동화	26 (50.0)	18 (35.3)	16 (30.8)	9 (28.1)	69 (36.9)
가사의 외부화	0 (0.0)	3 (5.9)	3 (5.8)	5 (15.6)	11 (5.9)
가사작업 계획화	18 (34.6)	17 (33.3)	18 (34.6)	7 (21.9)	60 (32.1)
파출부 등의 이용	1 (1.9)	1 (2.0)	0 (0.0)	1 (3.1)	3 (1.6)
가전제품이용의 증가	8 (15.4)	18 (35.3)	21 (40.4)	11 (34.4)	58 (31.0)
가족구성원 각자 일하기	32 (61.5)	28 (54.9)	27 (51.9)	15 (46.9)	102 (54.5)
기 타	15 (28.8)	2 (3.9)	2 (3.8)	2 (6.3)	21 (11.2)
계	52	51	52	32	187

IV. 결 론

농촌생활의 질의 풍요로움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가 생활경영을 시점으로 한 농업경영과 농가주부의 관계, 가사운영과 가계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생산노동력의 분담상황을 보면 78.1%의 주부가 남편과 함께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농업생활에서 주부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주부가 크게 기여하는 우리의 농업실태를 알 수 있다.

둘째, 주부의 90%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고 있으며, 86.3%가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부 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에서 평균점 보다 낮은 항목은 가족 동반의 식사, 부부대화, 내구소비재의 순이었으며, 지역생활환경에 관하여는 보건소, 병원에 관하여는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보였다.

넷째, 농작업의 효율화 대책은 기계화, 조직화, 공동화, 작업의 계획화이었으며,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주부의 농작업 감량대책'과 함께 '가족의 협력에 의한 가사분담', '가족이 신변의 것을 스스

로 한다', '가사작업의 계획화' 등이 요구되어진다.

다섯째,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필두로 가사의 사회화, 서비스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식생활을 중심으로 가정 외 서비스의 이용이 보이지만, 농협이나 은행의 계좌이체나 현금카드의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계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자녀의 교육비나 교제비의 부담이 거론되었고, 수입의 불규칙, 빚과 부채의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인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과 생활만족수준 및 이에 따른 농가의 유형분석 -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거주지대에 따른 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1).
- _____, 최은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 박선화, 채옥희, 1996, 농촌주부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1).

이영대, 1993, 농업노동력의 여성화와 대응방향,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이영주, 1996, 한국의 농업. 농촌정보화의 현황,
농업정보연감.
임정빈 외, 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
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安城郡 農村指導所, 1996, 安城郡 地域 農業開發

一資料.
加藤 光一, 1993, 東北子 內地方 農家 韓國全羅北
道 農家 - 現代家族經營危機 日韓比較, 日
本村落 研究會編.
農村生活總合研究 夕一, 平成 6年, 農山漁家婦人
. 高齡者 農林水産業. 生活 關 基本調査 -
平成 5年版 -.
總理府 公報室編, 平成 元年, 日本人 暇 旅行.